



**오늘의 성가**

입 당	39	하나되게 하소서	성 체	174 164	사랑의 신비 떡과 술의 형상에
봉 헌	217 342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제물 드리니	파견	138	만왕의 왕

**말씀의 초대** ㉑ 스테파노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쪽에서 계신 것을 보게 됨으로써 충절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제 1 독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당신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시며, 모든 이들이 천국에서 생명을 얻도록 초대하고 계신다(제 2 독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당신을 믿기 위해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또한 그분께서는 그들 안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일치를 위해 기도하시며, 모든 이들이 믿음을 얻게 하시려 한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간절함은 교회를 통해 드러내고 계신다(복음).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자기들의 긴 걸음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1 독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쪽에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㉑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7, 55-60  
그 무렵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쪽에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쪽에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증인들은 걸음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테파노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4, 18:16, 22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라. ◎

**복음**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 20-26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도 알려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화답송**

시편 97(96), 1 과 2 나. 6 과 7 다. 9(◎ 1 나과 9 나)



- ◎ 주님은 임금이시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 주님은 임금이시다. 땅은 즐거워하고, 수많은 섬들도 기뻐하여라. 정의와 공정은 그분 어좌의 바탕이라네. ◎
- 하늘은 그분 의로움을 널리 알리고, 만백성 그분 영광을 우러러보네. 모든 신들이 그분께 경배드리네. ◎
- 주님, 당신은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신들 위에 아득히 높으시웁니다. ◎

**제 2 독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  
㉑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2, 12-14. 16-17. 20  
나 요한은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 주겠다. 나는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li> <li>▪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li> <li>▪ 김시영, 최성규의 영혼을 위하여 - 최 율리아나</li> <li>▪ 어머니 최기옥(테레사)의 영혼을 위하여 - 임광선(요한), 임익선(토마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제, 수도자의 성소의 은총을 구하며 - 성소후원회</li> <li>▪ 이정우(바오로) 형제님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빌며 - 최태영(스테파노) 가족 / 박서진(사무엘) 가족 / 임광선(요한)</li> <li>▪ 양영길 형제님의 자제 양 Andy 군의 새 가정에 축복을 기도하며 - 요셉회 / 노스브런스워 구역</li> <li>▪ 이 Avery 지서의 출생을 축하하며 - 가족</li> <li>▪ 오홍순(카타리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오.사.모</li> <li>▪ 맹완식(어거스틴), 최태영(스테파노), 손영학(빈첸시오), 임광선(요한) 변태용(요셉)가족</li> </ul>

 **지난 주 우리의 정성**

KCC 주일 헌금	\$ 1,131	감사 헌금	권속자 (\$500)	미사 참례자 수	157 명	
OLM 주일 헌금	\$ 4,195					
교무금 (\$2,780)	김금자(5) 이용문(5)	이운상(1-6) 이순재(5-8)	변태용(1-6) 박재영(3-5)	황태진(5-6)	오용덕(5-6)	김복희(1-4)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 차헌금  
- Payable to *Our Lady of Mercy* 또는 *OLM*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 교무금과 감사헌금은 봉헌함에 넣지 마시고 사무장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소식**

**◆ 2 차 헌금**

- 오늘 미사 중 교구청 주관으로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캠페인과 가톨릭 대학을 위한 2 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 (6/9) 성당 유틸리티 비용 지원을 위한 2 차헌금이 있습니다.

**◆ 매일미사책 배부**

- 6 월 매일미사책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백헬렌 자매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 1년 구독 비용 : \$48
- 문의 : 백영숙 헬레나 (732-841-9982)

**◆ 본당 야외미사 안내**

- 일시 : 6 월 16 일(일)
- 장소 : Donaldson Park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 신자등록서 배부**

- 6 월 30 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하였으니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2019 OLM Church Parish Communion Breakfast**

- 미국 신심단체 Rosary Altar Society 와 Holy Name Society 주관으로 진행되는 Communion Breakfast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6 월 9 일(주일) 9:00-11:00, 친교실
- 티켓 가격 : \$17 (13 세 이상 성인), \$8 (6-12 세 아동)
- 티켓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 프린스턴 한인성당 25주년기념 골프대회**

- 일시 : 6 월 15 일 (토) 오전 10 시 30 분 (신청마감 6/1)
- 장소 : Mercer Oaks Golf Course
- 참가비 : \$120 (점심, 저녁식사 제공)
- 참가신청 : 오용운(토마스아퀴나스) 행사분과장 또는 사무실

**◆ 2019 San Alfonso's Men's Retreat**

- 주제 : "The Call to Holiness"
- 일시 및 참가비 : 9 월 6 일 ~8 일
- 장소 : San Alfonso's Retreat House (755 Ocean avenue Long Branch, NJ07740)
- 참가비 : \$ 240
- 문의 : Felix Reid (732-259-0979)  
Keith Fasanella (732-356-5780)

◆ 6 월 푸드 콜렉션

- 푸드 콜렉션이 6/29-6/30 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가지고 오신 비 신선식품을 성당 입구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떡 나눔 안내

- 임마르코, 스텔라님의 자제분 결혼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신 본당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분들께서 떡을 준비해주셨습니다.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 소공동체 소식

◆ 사목회의

- 일시: 6 월 2 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6 월 10 일(월) 저녁 8 시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미 신심단체 Holy Name Society 모임

- 일시: 6 월 11 일(화) 저녁 7 시 30 분
- 장소: 친교실

◆ 복사단 모임

- 일 년 동안 수고해주신 복사단을 위한 피자파티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 일시: 6 월 23 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 구역모임

- 썸머셋
- 일시: 6 월 2 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습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누입니다

✂ 루카 24,46-53 (예수 승천 대축일)

“( )에서부터 시작하여, ( )의 ( )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 )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루카 24,47)

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 )을 채워 넣어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건네시는 예수님의 모습(얼굴표정, 목소리, 몸짓 등)을 상상해 보면서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루카 24,49)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오르셨다.” (루카 24,51)

2. 예수님께서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주시게 하기 위해 제자들과의 이별을 선택하십니다. 강복하시며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헤어짐을 보며 느껴지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루카 24,52)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루카 24,53)

3. 부활하신 예수님과과의 이별은 제자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별이 기쁨인 이유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내 삶 속에서 헤어짐이 기쁨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 요한 16,12-15 (부활 제 8 주일)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한 16,7)

1.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성령을 받은 하느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보호자이신 성령의 활동,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나누어 봅시다. (성령은 열매로서도 나타납니다. -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 갈라 5,22)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요한 16,13 나)

2.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오십니다.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내어 주는 분이요, 꾸밈없는 분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어 주는 기쁨을 맞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요한 16,15)

3.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체험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또한 나는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서로 나누어 봅시다.